



빛고을 합창 페스티벌

18~19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지역 17개 합창단 700여명 참가

이화챔버콰이어·광주시립 초청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가는 합창은 매력적인 장르다.

지역 합창인들의 축제가 마련됐다. 제7회 빛고을 합창 페스티벌이 18일~19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다. 17개 합창단 7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다.

지난해까지 광주문화재단이 진행하는 '페스티벌 오 광주' 행사 일환으로 열리다 올해부터는 한국합창총연합 광주합창연합회가 맡아 추진한다.

18일 오후 7시 열리는 초청 공연은 광주시립합창단, 이화챔버콰이어(지휘 박신화)의 무대로 꾸며진다.

올해 임한귀 지휘자 취임한 레퍼토리로 광주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광주시립합창단은 최근 칼 오르프의 음악극 '카르미나 부라나'를 무대에 올리기도 했다.

국내외 합창 애호가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화챔버콰이어의 초청 무대도 눈에 띈다. 이들은 국내외 민요와 성가곡, 창작 합창곡을 비롯해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등을 선사한다.

19일에는 인터넷 공모를 거쳐 접수된 22개 지역 아마추어 합창단 중 심사를 통해 선정된 15개 팀이 무대에 오른다.

오후 3시에는 한마음 한소리 합창단, 광주파하모니남성합창단, 수피아여중 합창단, 문맘스콰이어, 사랑의 은파 합창단, 광주가톨릭 합창단, 광주 남구 합창단이 무대에 오른다.

또 오후 7시에는 빛고을건강타악 합창단, 광주북구 합창단, 광주CBS 여성 합창단, 광주예육원 꿈의 품은 메아리 합창단, 아이필 콰이어, 광주서구여성합창단, 광주아버지합창단, 사랑의 부부 합창단이 공연한다.

이번 행사에 앞서 15개 참여 합창단은 지난 9월부터 푸른길 공연, 첨단 쌍암공원 등에서 5차례 이벤트 공연을 열었다. 일반 1만원, 학생 5000원. 문의 010-9403-5969, 010-8772-566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재도약 속도낸다

비대위 정식 발족, 미술계·마케팅 전문가 등 15명 구성...오늘 1차 회의

창설 20주년을 맞아 심한 성장통을 겪었던 광주비엔날레재단이 대대적인 조직개편 및 발전 방안 논의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15일 "광주비엔날레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칭)를 정식 발족하고 광주비엔날레 재도약의 발판 마련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정동태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미술계 5명, 시민사회 및 언론계 3명, 경영 및 마케팅 전문가 3명, 문화예술계 2명, 재단 관계자 2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됐다.

비대위원은 강수미(동덕여대 예술대 회화과 교수·미술), 강진혁(이노션 국장·마케팅), 김성산(금호고교 사장·경영), 김현진(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 미술관장·미술), 박진현(광주일보 편집부국장·언론), 윤성진(뉴스컴퍼니 기획감독·예술경

영), 이기훈(문화도시협의회 상임이사·시민단체), 이요숙(광주미술협회 평론분과 위원장·미술), 임근중(광주비엔날레 디자인팀장·재단), 정경운(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문화교육), 최영태(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시민단체), 최재영(광주미술협회 부회장·미술), 허달용(전 광주민족예술인총연합회 회장·미술), 한갑수(광주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회장·문화예술)씨 등이다.

광주비엔날레재단 관계자는 "주요 현안과제에 따른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과 관련 단체 추천과 재단에서 초청한 인사들로 균형을 맞췄다"며 "지역 단체를 추천 인사를 제외하고는 미술과 경영, 마케팅 부문에서 지역과 외지 위원의 비율을 적절하게 분배했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은 지역과의 사회적 통합을 꾀하기 위해서 광주상공회의소, 광주미술협회, 광주민회, 광주예총, 문화도시협의

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6개 단체가 모두 7명의 위원을 추천했고, 나머지 위원들은 재단 관계자와 재단에서 전문가 리서치를 통해 선정한 인물들로 구성됐다.

앞서 재단은 지난 1일 비대위 구성 및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역 원로 및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광주비엔날레 혁신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비대위는 16일 오후 3시 재단 3층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1차 회의에서는 앞으로의 활동 방향과 명칭, 운영 방법, 주요 연구 과제 등을 논의한다. 현재 비대위가 다룰 주요 의제는 ▲광주비엔날레 정체성 및 비전 재정립 ▲안정적 재원 조성 및 경영 효율화 방안 ▲재단 조직 체계 및 운영의 효율화 ▲광주비엔날레와 지역미술계, 시민사회와의 관계 ▲광주비엔날레의 국제 경쟁력 및 역할 강화 방안 등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음악의 매력 '세상의 모든 아침'

광주극장 18일 '옛날 영화 보러 갔다'

광주시내마태오과 광주극장은 '옛날 영화를 보러 갔다' 10월 작품으로 알랭 코르노 감독의 영화 '세상의 모든 아침'(1991·사진)을 필름 상영한다. 18일 오후 7시30분 광주극장.

영화는 루이 14세가 통치하던 17세기 중반을 배경으로 비올라 다 캄바의 거장 쟁프 폴트브와 제자 마랭 마레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모든 것을 음악에 걸어버린 한 예술가의 고집스러운 삶이 아름다운 풍광과 음악 속에 펼쳐지는 영화는 깊은 감동을 준다. 무엇보다 고약기로 듣는 음악이 인상적이다. 영화 전반에 흐르는 음악은 비올라 다 캄바 연주자의 대가 조르디 사발이 들려준다.

프랑스 대표 배우 제라르 드 파르디유가 마랭 마레로 출연하며 젊은 시절은 아들 기욤 드 파르디유가 맡았다.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월계관 (月鷄冠)

척박한 땅에서 만개한 꽃, 작가와 닮았네

박동신 '월계관의 미술사'전...22일까지 갤러리D

20년 넘는 세월 동안 맨드라미를 천착해 온 서양화가 박동신. 그는 장예를 들고 예술혼을 불태우고 있는 작가 중 한 명이다. '시들지 않는 사랑' '영생' '열정'이라는 꽃말이 있는 맨드라미처럼 박동신은 불변한 몸을 이끌고 열정적으로 창작활동을 불태우고 있다. 특히 4년 전부터는 오른손이 마비돼 왼손으로 붓을 잡고 있지만 작품의 완성도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그의 그런 삶은 본인도 가장 존경한다는 손상기와 프랑스의 화가 툴루즈 로트렉, 척박한 환경에서도 꽃을 피우는 맨드라미와도 닮았다.

중견작가 박동신의 열여덟 번째 개인전 '월계관(月鷄冠)의 미술사'가 16일부터 22일까지 갤러리D에서 열린다. 주제 '월계관의 미술사'는 달(月)과 계관화(鷄冠花)로 불리는 맨드라미의 합성어다.

고향인 영암 시골집 앞마당에서 처음 만난 맨드라미는 긴 시간을 지나오면서 그의 집념이 담겨 한층 더 내밀해지고 깊어졌다.

초기 사실적 표현과 달리 단색으로 처리된 배경 속에서 강렬한 색감을 드러내

는 맨드라미는 더욱 작품 속에서 빛을 발한다. 특히 맨드라미와 함께 그려진 달은 빛을 뿜어내면서 서정성을 더한다.

작품에는 삶의 향기가 가득하다. 어머니를 상징하는 맨드라미는 가족들을 위해 달빛 아래서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비친다. 뒤늦게 얻은 5살 난 딸의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작가는 "맨드라미는 시들어버릴 꽃이 아니라 영원히 시들지 않을 삶의 기원이자 나 자신"이라고 말했다.

조선훈 미술대학을 졸업하는 박동신은 광주미술상(1998)과 대동미술상(2008) 등을 수상했으며 서울과 광주, 부산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문의 062-222-8011.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호수에 내려앉은 클래식



광장음악회 18일 노대동 물빛호수공원

'가을밤 적시는 클래식 선율.' 63회 광장음악회가 18일 오후 7시 광주시 남구 노대동 물빛호수공원에서 열린다.

이번 음악회는 한창 열심히 활동하는 젊은 연주자들을 격려하는 무대다.

바이올리니스트 김관후씨가 '타이스의 명상곡'을 들려주며 메조 소프라노 이민주씨가 오페라 '카르멘' 중 '하바네라'와 '베사메 무초'를 부른다. 또 비올리니스트 양신애씨가 연주하는 뷔에탕의 '소나타 작품 36', 첼리스트 박효은이 연주하는 도파의 '첼로를 위한 콘서트 폴로네이즈'와 바카를라의 '안단테 콘 모토', 손성아의 플루트 솔로곡 '노래의 날개 환상곡' 등을 만날 수 있다.

그밖에 소프라노 신은선씨가 도니체티의 오페라 '돈 파스칼레' 중 '기사의 뜨거운 눈길'을, 바리톤 장은석씨가 신동수 곡 '산아'를 들려준다.

피날레 곡은 피아노 앙상블로 들려주는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1번'과 피아졸라의 '리베레 탱고'다. 피아노 연주는 나원진·백승유씨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물디자인으로 바뀌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밸런트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